

與 “공수처 이달내 출범… 중대재해법·아특법 처리 속도”

민주당 최고위 회의

공수처장 후보 청문요청안 제출
한국판 뉴딜 입법 2월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이달 안에 마무리 하고 광주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은 오는 23일까지 청문회를 완료해야 하는데 가급적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공수처 출범을 1월 중에 완료하자는 의견 개진이 많았고, 공감을 이뤘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불참 검토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발목잡기를 하는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을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8일에)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킨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내일 법안소위에서 진척이 되면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고, 여야 간 조정이 (잘 안 되면)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관



민주당 “중기·소상공인 의견 경청해 중대재해법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태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련해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고객이) 다치면 목욕탕 주인이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법사위가 잘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을 어떻게 유예할 건지 법사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잘 상의하고 정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날 청문요청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 재가와 송부여 예정대로 이날 이뤄지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입법, 기업의 새로운 활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도 2월 국회까지는 처리하겠다”면서 “이번 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룰 이번주 결정

부산, 후보 없어 순차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룰(규칙)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4일 “이번 주 중에 서울 경선룰부터 결정하고 부산은 좀 천천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 재보선거법안은 오는 7일 회의에서 경선룰과 일정은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 선거 경선룰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선룰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

론조사 50%’ 합산, 여성 가점 조항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가칭 시민평가단을 도입해 후보 토론회를 평가하게 하고 그 점수를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은 출마 고심이 깊어지면서 불출마 관측까지 나오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이 입당하는 즉시 제

보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최근 규정을 바꾼 것도 3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부산의 경우 공식 출마선언을 한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보다 경선룰 결정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경선 일정도 자연스럽게 서울 경선 뒤로 늦춰질 수 있다.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역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후보군 자체가 적은데다 김 전 총장과 나머지 후보의 지지를 격려하겠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의당 ‘중대재해법 단식 투쟁’

강은미 의원 건강 악화에 병원행...김종철 대표 릴레이 단식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단식 투쟁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단식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의 모듬발언에서 “중대재해법이 원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은 주어진 5일 안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가세했다. 동조 단식에 나선 전남도당 인사는 이보라미위원장(도의원)과 윤소하 전 정의당 원내대표(전 국회의원), 최현주 도의원, 백동규 목포시의원, 김기찬 영암군의원등이다. 이들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단식을 이어간다.

정의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마치 2년 전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처럼, 중대재해법 역시 왜곡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중대재해법 원안이 훼손되지 않고 임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

했다.

한편 이에 앞서 23일 동안 단식을 하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한 뒤 정밀 진찰을 받고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단식 23일만인 지난 2일 병원에 이송된 강 의원에 대해 의료진이 강력한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며 “병원 등에서 정밀 진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식 농성은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고 이한빛씨 아버지인 이용관씨와 민주노총 이상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단식농성이 시작된 지난날 10일부터 단식을 하며 국회 일정을 소화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운 병상은 가시방석이 깔려있는 것 같고 머릿속에는 법안의 쟁점들만 떠올라 다니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사지가 원망스럽다”며 “제가 먼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비록 단식을 멈추게 되었지만, 산재를 없애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정치하겠다는 저의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임종석 전 비서실장, 우상호 공개 지지

서울시장 출마설 일축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우상호 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며 “체계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

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일찌감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 부기 결정 이후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밝히면서 임 전 실장의 재보선,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임 전 실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선을 그으면서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임 전 실장은 주변으로부터 최근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받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종석 전 실장도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어야 된다, 모든 걸 다 던져야 된다, 마지막 도전을 진짜 헌신적으로 해야 한다”며 임 전 실장의 대선 출마를 공개 권고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친 문재인)과 586 진영에서 임 전 실장의 대선 출마를 적극 지원한다면 편을 흔들 수 있지 않느냐는 사나리 오가 나오고 있다. 또 임 전 실장이 대선에 나선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호남 지역 기반이 겹치고 있어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흥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 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 (방 2개)	3,110	1,88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가지런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